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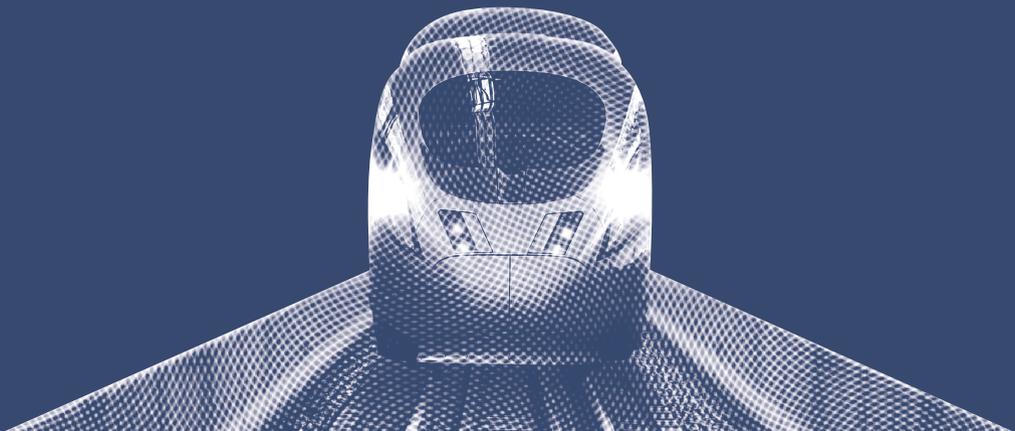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기차와 지하철은 결코 저절로 달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없이 철로를 점검하고 다듬는 궤도노동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싣고 묵묵히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기관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의 여정은 언제나 안전하게 이어진다.

철도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산업혁명의 상징이자 국가 발전의 동맥으로 자리 잡은 철도는 궤도노동자의 손끝과 기관사의 책임감 위에서 움직여 왔다. 한국 철도는 1899년 경인선 개통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초기에는 임시 인부들이 철길을 놓는데 주력했지만, 열차 운행이 본격화되면서 궤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노동자와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할 기관사의 역할이 필요해졌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을 거치며 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쟁으로 파괴된 철길을 복구하고, 산업화로 급증하는 수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궤도노동자와 기관사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라의 동맥’을 잇고 움직이는 일에 매달렸다.

오늘날 철도에는 첨단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마지막 안전의 문턱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작은 균열 하나, 미세한 흔들림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궤도노동자의 눈과 손끝, 기관사의 직감과 판단은 그 어떤 기술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달리는 기차와 지하철에는 그들의 땀과 발자국이 켜켜이 쌓여 있다. 철로를 지키는 궤도노동자와 기관사들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국민의 안전을 묵묵히 책임지고 있다. 이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필 때이다.

철로 위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



Contents

OCTOBER
2025

Vol. 450

통권 450호(2025년 10월)
등록일 2015년 1월 13일
등록번호 청주 라00059
간별 월간
발행인 백헌기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발행처 대한산업보건협회
전화 043-540-8500
기획·디자인 문화공간(02-2266-1897)

월간 <K-산업보건>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며, 협회 홈페이지(www.kiha21.or.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사항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담긴 내용은 월간 <K-산업보건>이나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외홍보국(☎ 043-540-8432~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SSUE PAPER+ 궤도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 04 지하철 노동자의 건강위험과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제안
- 08 궤도노동자의 직업병과 개선방안
- 12 철도 위 노동자의 위험 통계
- 14 이슈체크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 18 꼭 짚어 말하자면
산업안전감독이 '물감속' 되지 않으려면

PEOPLE & INSIGHT+

- 20 국외 산업보건 동향
UIC 안전보고서로 본 궤도노동자 재해 현황
궤도노동자의 소음 노출 관리: 핀란드 사례
- 24 오픈 리포트
부산남부지역본부 신사옥 개소식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HEALTH & TOGETHER+

- 26 그 사람의 직업병
영화 <부산행>으로 보는 철도승무원의 근무환경과 위험요소
- 28 산업보건 Q&A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안 받아도 되나요?
- 30 천천히 걷기
그 길의 끝에서 시간여행, 철도박물관
- 34 용어 바로알기
급박한 위험, 멈추고 대피할 권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 36 KIHA Cartoon
궤도노동자의 근무환경

KIHA NEWS+

- 40 KIHA NEWS
- 50 KIHA에듀센터 교육 일정 안내
- 52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 컨설팅
- 54 독자마당